

2023 GLOBAL TALENT FAIR

글로벌 일자리대전

(국내 구직자의 해외 취업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채용지원)

외국인유학생 채용박람회

(국내 기업의 외국인전문인력 발굴 지원)

8.21(월) ~ 22(화) 10:00~17:00

서울, COEX / 3층 (C-hall 및 컨퍼런스 룸)

홈페이지
globaltalentfair.kotra.biz



주요 프로그램

- 기업 채용관(1:1 면접/상담)
- JOB 콘서트(취업특강&기업 채용설명회)
- 1:1 취업컨설팅(면접, 이력서 첨삭 등)
- 구직자 참가 이벤트

HRD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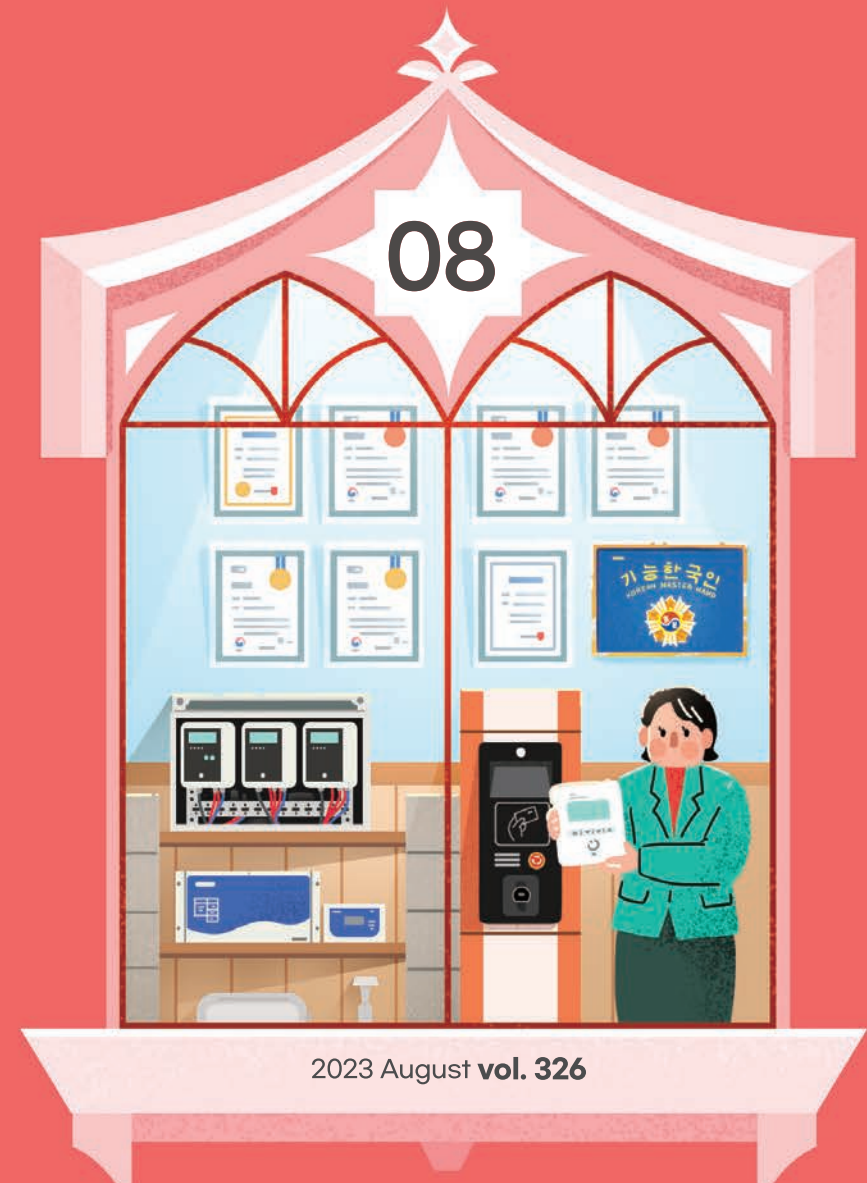
한국산업인력공단 2023 8 vol. 326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orea

08



2023 August vol. 326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주관 | kotra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특별시 국립국제교육원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금융감독원



발행일 2023년 8월 1일
 발행인 김영중
 편집인 윤명섭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미디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우선정
 글 박소현
 전화 051.636.1210



Cover Story

색색의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2023 HRD Korea 8월호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함께 비추는
 숙련기술의 반짝임을 담았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
 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HRD)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제작해, 무
 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빛고

h

04 능력을 빛는 사람들

혁신과 도전, 기술로 꿈꾸는 100년 강소기업
 _ (주)그린이엔에스 이숙희 대표

08 NCS 돌보기

지능형전력망설비 직무분석

10 HRD Focus

솔직담백 HRDK 생터뷰
 _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 x 2023년 체험형 인턴이 만나다

14 업그레이드 HRD

숙련기술 우대 풍토 조성, 스타기술인이 나선다

#기술로 #쌓아

R

16 HRDK 인포그래픽

숙련기술장려사업

18 HRDK 이야기

명장의 숙련기술, 세월 갈수록 무르익조
 _ 서완석 (사)대한민국명장회 회장

22 미래를 짓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수상작

24 상생스토리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전
 _ (주)맑은기업(베이커스 바오밥)

#한 단계 #성장하며

D

28 함께 한 걸음

부산을 빛내는 일곱 교량 세븐브릿지를 만나다

32 세대공감 비즈니스

N잡러가 된 MZ세대

34 뜨는 키워드, 뜨는 직업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의 세상, 네버랜드 신드롬

#이어지는 #HRDK

K

38 읽어주는 직장

중대재해 막아주는 AI가 뜬다

40 건강해지는 건강

여름철 염분 섭취는 필수! 소금과 건강

42 HRD 뉴스

44 독자이야기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는 기술인,
 오랜 경험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에 도달한 대가(大家),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숙련기술을 계승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숙련기술을 우대하여 힘이 되어주는 기업까지.
 기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원동력
 숙련기술장려사업이 책임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숙련기술인, 그리고 숙련기술장려에 힘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명장 수

680명



혁신과 도전,

기술로 꿈꾸는 100년 강소기업

2023년 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주)그린이엔에스 이숙희 대표

여성의 사회진출 보편화에도 여전히 벽이 높은 분야가 존재한다. (주)그린이엔에스의 이숙희 대표는 그래서 더욱 눈에 띄는 인물이다. 골목길 전파상으로 시작해 정보통신 공사로 그 영역을 확장했고, 이제 친환경에너지 전력사업으로까지 걸음을 내딛고 있다. '여성기술인'이 아니라 '기술인'으로서 나아가는 그의 희망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전파상 기술자에서 강소기업 대표로 성장하기까지

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날, 나주시에 위치한 (주)그린이엔에스를 찾았다. 억수 같은 비를 뚫고 만난 이숙희 대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안전모와 우비 차림이었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다 온 기술인의 모습 그 자체. 빗속에서 대형 전봇대 설치 작업을 지켜보다 온 참이었다.

처음 이 직종에 뛰어든 것은 결혼 직후였다고 한다. 남편과 함께 생활전선에 직접 나선 것이다. 1987년 대한민국은 시대적 격변을 겪고 있었고, 통신업계에는 한창 디지털 바람이 불던 시기였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원리를 알고 싶어 했어요. 하다못해 부엌에서도 고구마 줄기는 왜 어느 때는 잘 벗겨지고, 어느 때는 잘 안 벗겨질까 궁금했죠. 하지만 모두가 난하게 살았던 그 당시는, 여성에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통신기술자였지만 이숙희 대표는 자신의 이름

으로 전파상을 차렸다. 일을 하고 싶었음에도 키가 작아서, 몸집이 왜소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화기가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던 시기, 이숙희 대표의 전파상은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다른 전파상과 달리 찾아온 고객에게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수리까지 해줄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객 서비스’의 개념을 일찌감치 깨우쳤던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고, 회사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렸다. 그리고 그 성장에 따라 사명도 여러 번 바뀌었다.

“기존 사명이 ‘금성전화공사’였는데, 이 용어 자체가 우리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 같았어요. 마침 IT 열풍이 불기 시작하며 통신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 1980년대 말이었기에, 사명을 ‘그린정보시스템’으로 변경했죠. 이후 2019년 환경사업 분야에 주력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결국 ‘ENS’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녹색의 생명력을 좋아하던 이숙희 대표는 그린(green)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한참 전, 지금의 사명을 완성했다. ‘그린이엔에스’는 이처럼 회사의 비전과 대표자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 있는 이름이었다.

AC-DC 다채널 전력미터가 가져다준 명성

현재 그린이엔에스의 사업은 크게 통신과 전력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통신사업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선로구축 협력사 업무와 각종 관공서에 네트워크 구축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전력사업으로는 자체 연구개발한 ACDC 다채널 전력미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력 IT사업을 진행 중이다. ACDC 다채널 전력미터는 그린이엔에스의 사업 분야를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다.

“ACDC 다채널 전력미터는 말 그대로 AC와 DC의 전력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도구로서, 특히 신재생발전원의 발전량 그리고 전력공급과 전력소비량을 정밀하게 계측하여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스마트빌딩과 스마트공장의 전력 부하감시에 적합하며, DC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측정에도 활용할 수 있지요.”

이숙희 대표는 제품의 개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이를 개발할 당시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또 DC 배전에 대한 기초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였어요. 기존의 전력량계가 AC전력량을 측정하는 것처럼, 향후 AC와 DC가 혼재되는 배전망에서는 AC와 DC를 하나의 장비로 측정하는 전력량계가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C채널 19개와 DC채널 3개를 동시다발적

으로 모니터링하며 각기 다른 직류와 교류의 전력 상태와 데이터를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장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현재 해외 수출까지 바라보는 그린이엔에스의 효자 아이템이 되었다.

꿈수는 없다, 정직과 신뢰를 원동력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KT 협력사 중 유일한 여성 협력사 대표로서 걸어온 길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기술적인 면에서 신뢰받기까지 먼 길을 돌아와야 했으며, 영업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아직도 시골에 가면 “남편을 데려오라”며 소리치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 또한 여성 기술인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숙희 대표는 이 모든 장애물을 오직 기술과 실력으로 뛰어넘어왔다.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은 채 날카로운 혜안으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쉼 없이 연구하고 공부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린이엔에스는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이다.

“현재 아프리카 가나에 고효율 쿽스토브를 보급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CDM)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쿽스토브는 세라믹·금속·시멘트로 제작되어, 연료의 사용량을 20~30% 이상 절감해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줍니다. 이 사업은 한국동서발전이 기후변화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현지 사업 운영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요.”

다양한 도전을 해왔고, 또 새로운 도전을 앞둔 이숙희 대표가 40여 년 동안 기업을 운영해오며 고수해 온 한 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꿈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꿈수는 곧 또 다른 위기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타파하고자 또 다른 꿈을 부리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그간 쌓아온 정직과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제게는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바로 리스크관리 전략이에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정도(正道)를 지켜온 이숙희 대표는 올해 초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됐다. 그는 이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향후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숙고하고 있었다.

“제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며,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서 100년 기업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가업을 승계 중인 아들과 함께 모자(母子) 기능한국인이 된다면 더욱 기쁘겠지요.”

수많은 목표 속에서도 무엇보다 명확한 꿈이 있다고 말하는 이숙희 대표. 그것은 바로 기술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겪어온 다양한 경험을 후배 기술인들에게 전승하는 것, 그리고 보다 발전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빛나는 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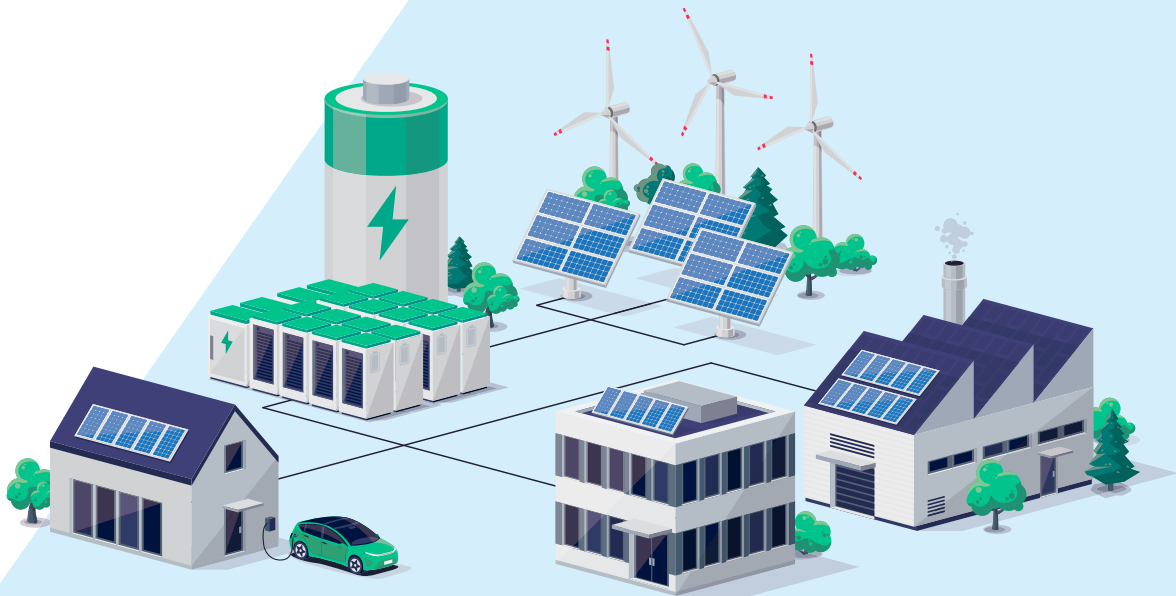
전력서비스의 미래,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전력망설비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 방향으로 필요한 에너지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모든 시장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에너지를 공급, 소비, 저장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설비를 구축하는 일이다. 지능형전력망설비 직무에 대해 알아보자.

지능형
전력망설비
직무분석

지능형전력망설비 NCS능력단위

| 능력단위명 | | 수준 |
|-------|-------------------------|----|
| 1 | 지능형송전망 구축 | 5 |
| 2 | 디지털변전소 설계 | 5 |
| 3 | 지능형배전망 구축 | 4 |
| 4 | 지능형전력통신망 인프라 구축 | 3 |
| 5 | 지능형소비자 전기설비구축 | 5 |
| 6 | xEMS구축 | 5 |
| 7 | 마이크로그리드 분석 | 3 |
| 8 |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 5 |
| 9 | 마이크로그리드 설치·운영 | 4 |
| 10 | 신재생 계통연계 설비 구축 | 5 |
| 11 | 전기차(EV) 충전설비 설계 | 5 |
| 12 | 전기차(EV) 충전설비 구축 | 3 |
| 13 | 지능형 전력 계량시스템(AMI) 설비 설계 | 4 |
| 14 | 지능형 전력 계량시스템(AMI) 설비 구축 | 3 |



마이크로그리드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지능형전력망설비 능력단위 가운데 마이크로그리드 설치·운영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은 이에 필요한 능력단위요소 중 '마이크로그리드 설치하기'에 대한 수행준거와 KSA(지식·기술·태도)다.

| 분류번호 1901040112_16v2 능력단위 명칭 마이크로그리드 설치·운영 | |
|---|--|
| 정의 | 마이크로그리드 설치·운영이란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 발전원, EES, PCS 등의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다. |
| 요소 | 1901040112_16v2.1 마이크로그리드 설치하기 |
| 수행 준거 | <div><div>1.1 발전원, EES, PCS, 전력량계 등 기기와 장비를 설계도서에 준하여 안정성 기준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div><div>1.2 에너지저장장치를 계통연계형, 독립형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장비를 확인하여 설치할 수 있다.</div><div>1.3 신재생 발전장비를 안정적이고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div><div>1.4 각 장치 간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통신 및 전력계통을 연계할 수 있다.</div></div> <div><div>지식</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품질관리 기준* 발전원에(태양광, 풍력 등) 대한 이론* 전력계통 이론* 전력시스템의 독립운전과 계통 연계 이론* 분산전원 연계기준* 통신 시스템 이론</div> <div><div>기술</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통 연계 기술* 전력변환기술* 배전보호협조* 신재생 에너지원 연계* 배터리 연계* 전력품질 측정</div> <div><div>태도</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사항 준수 의지* 종합적인 관리자 태도* 정확한 설계를 위한 수리력</div> <div></div> |



출처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
NCS 및 학습모듈 검색

19.전기·전자 > 01.전기 >
04.지능형전력망설비 > 01.지능형전력망설비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 × 2023년 체험형 인턴이 만나다

생기발랄 질문,
생생한 답변!

솔직담백
HRDK 생터뷰

지난 4월 62명의 체험형 청년인턴을 채용한 공단! 봄꽃처럼 수줍게 찾아온 그들과 함께한 지 어느덧 3개월을 바라보는 어느 날, 특별한 만남이 성사됐다.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영중 기획운영이사과 인턴 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된, 그 뜻깊었던 그 시간을 전한다.



김영중 이사



김나연 인턴



정유진 인턴



김남호 인턴



김영서 인턴



올해도 공단 체험형 인턴이 채용됐습니다.
우리 기관의 인재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김영중 공단은 K-HRD를 잇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의 공통된 목표와 의의는 '국민에 대한 봉사'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 구성원에게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한 결실과 더불어 신뢰, 나아가 고객 만족이 따라올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평생능력개발'이라는 큰 임무를 부여 받은 만큼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적자원개발'이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를 검증해보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영서 학과 행사의 일환으로 도제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공단의 업무를 더 깊이 알게 됐고, 인적자원을 관리·개발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돼 인턴직에 지원하였습니다.

김남호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던 중 체험형 인턴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기업인 공단에서 실무 경험과 가점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인턴으로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인턴 여러분이 공단 체험형 인턴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김나연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며, 채용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에 관심을 가지게 돼, 이번 체험형 인턴 채용에도 도전하게 됐어요.

정유진 작년 여름 오픈캠퍼스 참여를 통해 공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으로 인

정유진 제가 근무하는 기술자격출제실은 특성상 보안업무가 많아 직원들 간 소통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출제실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적극 진행 중입니다. 관련하여 제가 담당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캐리커처 좌석배치도를 만들었던 일이에요. 사진을 캐리커처로 변환해주는 앱을 이용해 만들었는데, 부서 내 반응이 좋아 현재는 실 전체 부서의 좌석배치도를 만드는 중입니다. 서로의 캐리커처를 확인하며 즐겁게 웃고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뿌듯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영서 저는 울산지사의 직업능력개발부에서 외국인 사업을, 그중에서도 주로 입국초기 지원 점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협력과 업무 효율 도모를 위해 분기별 시행되는 ‘유관협의회’에 참여했을 때,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생생한 실제 사례를 들으며 제가 맡은 모니터링 업무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으며, 유관협의회는 공단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협력과 소통의 장임을 실감했어요.

인턴에게 고민을, 이사님에겐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김나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인턴 생활을 통해 사무행정 업무를 경험하고 있는 것도 그 선택에 도움을 줄 거라 믿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사회생활 선배이시기도 한 이사님께 조언을 얻고 싶어요.

김영중 좋아하는 일을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일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잘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주 많거든요. 지금의 인턴 업무에도 스스로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마음껏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 내가 꿈꾸는 미래가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김남호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공기업 입사를 늦게 준비하게 된 상황이라, 동기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조급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준비한 만큼 잘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김영중 어떤 해결책을 드리더라도 정답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확실한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것을 또 다른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더 많은 경험과 연장자로서

의 포용심 등, 분명 김남호 인턴만이 가진 강점이 있을 겁니다. 또한,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공정 채용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에 힘써왔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누구에게나 입사의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털어버리고 당차게 도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체험형 인턴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중 책임감과 신뢰는 조직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분명 뒤따를 거예요.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는 그런 능력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공단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리며, 또 각자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만남에 감사드리며, 저도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INTERVIEW PLUS+
인턴직원 한마디!

김나연 인턴 친절하고 밝은 에너지의 직원분들과 같은 조직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공단의 사업을 더 깊이 알아가며 실무 경험을 쌓겠습니다!

정유진 인턴 인턴이기에 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도 직원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 인턴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이모저모를 직접 눈으로 보고 참여할 기회를 얻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지고 싶어요.

김남호 인턴 공단 업무를 배워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앞으로 이 경험을 살려 인턴이 아닌 정직원으로서 꼭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숙련기술 우대 풍토 조성, 스타기술인이 나선다

2023년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및 기특한 기자단 위촉식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토대이자 4차산업시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숙련기술인. 그중에서도 자신만의 성공담을 가진 우수한 이들이 '2023년도 스타기술인'이라는 이름표를 부여받아 숙련기술과 기술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됐다. 지난 7월 7일 열린 '2023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및 기특한 기자단 위촉식'은 바로 그 힘찬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숙련기술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다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는 2012년 이후 매년 학력 및 스펙을 넘어서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발굴, 스타기술인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숙련기술'과 '기술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스타기술인이 선발됨에 따라, '2023년 스타기술인 및 기특한 기자단 위촉식'이 개최되었다.

2023년 선발된 스타기술인은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각 분야의 전문가 5인. 조성현 기능장(요리), 정다운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국가대표(헤어디자이너), 전성국 우수숙련기술자(기계정비), 어준혁 기능장(산업설비), 김재훈 우수숙련기술자(제품디자인)가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여해 위촉식을 빛냈다. 이들은 향후 토크콘서트 강연, 방송 출연, 영

상 콘텐츠 제작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위촉식에서 강현철 능력개발이사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길을 밝혀주시고, 산업현장의 모습을 전 국민에게 전하며 숙련기술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길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스타기술인을 향한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스타기술인과 기특한 기자단,

메신저가 될 것

이번 행사에서는 숙련기술홍보 기자단인 '기특한 기자단' 제9기의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기자단은 고등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성인까지 폭넓은 세대로 구성돼 다양한 시선에서 전문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며 숙련기술을 홍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위촉된 기

자단원들은 숙련기술 장려사업 행사 취재, 홍보대사 취재, 숙련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숙련기술 관련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스타기술인과 기특한 기자단을 향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숙련기술 발전의 결과"라며, "홍보대사와 기자단의 활동으로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대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 다양한 소통으로 기술의 가치를 널리 알릴 스타기술인 홍보대사와 기특한 기자단.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통해 숙련기술이 더욱 존중받는 미래가 다가오길 기대해본다.

한편, 홍보대사와 기자단의 활동 내용은 숙련기술 포털

사이트 '마이스터넷' 또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공식 SNS채널 '숙련기술인'(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스타기술인 소개영상 보러가기!

2023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소개영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원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 '다함께 술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힘! 숙련기술장려사업

숙련기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다

공단은 국민에게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숙련기술장려사업을 전개 중이다.

[대한민국명장 직무분야별 선정 현황]

현장에서 15년 이상 오랜 경험과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로, 숙련기술의 발전과 숙련기술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자를 선정

| 분야 | 총합계 | 기계 | 금속 재료 광업자원 화학 | 전기 전자 통신 정보처리 | 건축 토목 산업응용 안전관리 | 교통 항공 환경 에너지 | 조선 해양 농림 국토개발 | 식품가공 | 섬유 산업디자인 서비스 | 공예 |
|------|-----|-----|------------------------|------------------------|--------------------------|-----------------------|------------------------|------|--------------------|-----|
| 합계 | 680 | 176 | 140 | 44 | 37 | 10 | 33 | 1 | 110 | 129 |
| 2022 | 19 | | 5 | 2 | 1 | | 1 | | 6 | 4 |
| 2021 | 11 | 3 | 4 | 1 | | 1 | | | 1 | 1 |
| 2020 | 13 | 2 | 4 | | 2 | | | | 2 | 3 |
| 2019 | 6 | 2 | 1 | | | | | | 2 | 1 |
| 2018 | 7 | 2 | 1 | | | | | | 3 | 1 |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현황]

산업 현장에서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 우수 숙련기술을 보유한 자

[숙련기술전수자 선정 현황]

보존 가치가 있는 숙련기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전수자(경력 15년 이상) 및 전수 대상자 선정

(‘11~’22 누적)

623명

접수 1,948명

81명 (접수 255명) 22년 6명 (6개 종목)

53명 (접수 219명) 21년 4명 (4개 종목)

46명 (접수 196명) 20년 4명 (4개 종목)

(‘95~’22 누적)

140명

기술인의 자부심 UP! 국가경쟁력도 UP!

숙련기술의 계승을 위한 전수 사업부터,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숙련기술인의 발굴,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능경기대회까지. 숙련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기술인과 산업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일이다.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현황]

숙련기술자들을 위한 채용·인사·임금체계 구축 및 제안제도, 현장발명 촉진제도 운영 등 숙련기술장려 및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업체

(‘86~’22 누적)

77곳
접수 139곳

8월 선정(예정)

23년

6명(1~6월)

3곳(접수 13곳)

22년

12명

0곳(접수 5곳)

21년

12명

[기능한국인 선정 현황]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기술로써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한 숙련기술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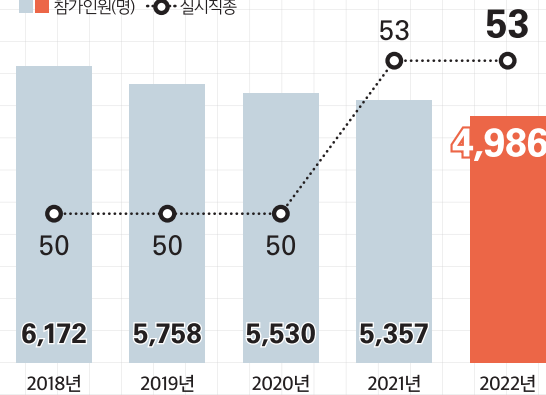
(‘06~’23.6 누적)

196명

[지방기능경기대회 연도별 개최 현황]

매년 17개 시도 기능경기위원회 소재지에서 각각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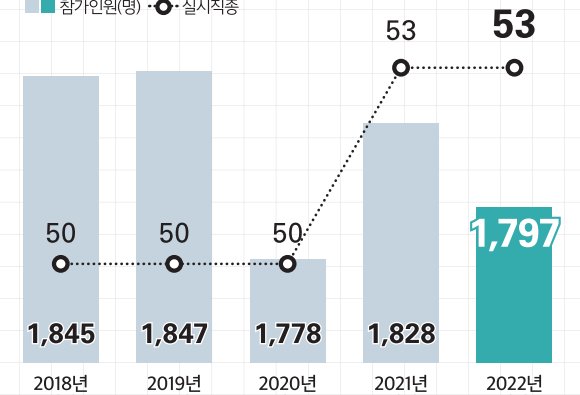
■ 참가인원(명) ●● 실시직종



[전국기능경기대회 연도별 개최 현황]

매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최고의 실력을 겨루는 장

■ 참가인원(명) ●● 실시직종



2023년 충청남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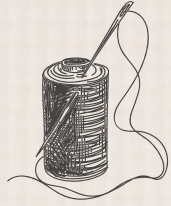
10. 14.(토)~10. 20.(금)

젊은 기능인들의 꿈의 무대,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충청남도에서 열립니다. 숙련기술인의 힘찬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명장의 숙련기술, 세월 갈수록 무르익죠

서완석 회장
(사)대한민국명장회



1970년대 초, 명동에는 잠만 자고 나면 새로운 의상실이 생겼다. 그곳에서 차곡차곡 꿈을 키운 청년은 입체패턴의 대가로 성장해 후배들을 이끌고, 이제는 대한민국명장회를 이끌며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힘을 쏟는다. 심 없이 달려온 50여 년, 여전히 명동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명장회 서완석 회장은 꿈을 재단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입체패턴 1세대, 대한민국 패션의 선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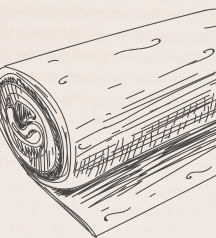
“아버지가 예순이 넘어 저를 얻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당시 이미 연로해진 부모님을 보며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의상실을 하던 친척의 권유로 명동에 발을 디뎠습니다. 국제복장학원에서 기본기를 배우고 의상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서완석 회장은 명동에서 패션의 전성기를 온몸으로 누렸다. 재단사로서 기술이 느는 재미에 고단한 줄도 모르고 보낸 시간이었다. 이미 손에 익은 기술만으로도 제 몫을 충분히 해내던 그였지만 더 나은 기술이 있는 곳이라면 부지런히 쫓아다녔다. 그렇게 한 세미나에서 접한 일본인 강사의 입체패턴 강의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출국 허가를 받는 데만 6개월씩 걸리던 1982년, 과감히 일본 유학을 떠난 것이다. 어렵게 떠난 유학길인 만큼 일본일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다. 입체재단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탄디자인연구소’와 ‘일본문화복장학원’에서 기술을 익히고, 주말에는 스승의 작업실에서 일본 패션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그토록 치열하게 입체패턴을 익히고 한국에 돌아왔지만 곧바로 꽃길이 펼쳐지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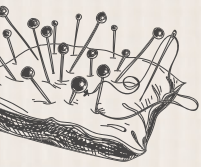
“일반적인 패턴은 종이에 옷본을 그린 후 재단하지만 입체패턴은 마네킹에 바로 천을 대고 핀을 꼽으며 패턴을 만든 다음 본을 뜹니다. 곡선이나 볼륨감을 더 생생하게 구현할 수가 있죠. 하지만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입체패턴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어요.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요. 그렇다고 평면으로 돌아가면 힘들게 배운 기술이 녹슬 것 같아 ‘입체패턴연구소’를 직접 차리게 됐습니다. 지금 있는 명동, 이 자리예요.”

대한민국 입체패턴의 선구자로서 묵묵히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던 그에게 기회가 왔다. 패션기업들이 기성복 시장을 확대하며 디자인의 다양화를 꾀했고, 입체패턴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국내에서 믿을만한 입체패턴 전문가라면 단연 서완석 회장. 그에게 입체패턴 기술지도를 받지 않은 패션 대기업 소속 재단사가 없을 정도로 그는 우리나라 패션의 진일보에 공헌했다.





시간을 뛰어넘는 50년 숙련기술



패턴사는 그야말로 숨은 조력자다.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지만 최고의 옷을 만들어낸다는 자부심으로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해나간다. 그런데 디자이너가 아닌 패턴사가 주목을 받는 이례적인 일이 생겼다. 1997년 제1회 서울패션위크 전시관에 프랑스의 세계적 디자이너 마들렌 비요네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재현한 옷이 걸린 것이다. 전문가도 까다로운 숙제로 여길 만큼 이음선 없이 한 폭으로 디자인한 드레스의 등장. 과연 누가 어떻게 구현했느냐에 관심이 쏠렸고, 이는 입체 패턴에 몰두한 지 24년 만에 '서완석'이라는 이름이 주목받는 순간이었다.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30년 만에 재현한 드레스였어요. 섬세한 주름과 굴곡이 모두 한 폭으로 이어지는 만큼 저 역시 수수께끼를 풀 듯이 접근해갔죠. 그간의 경험, 숙련기술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입체패턴 기술이 주목받으며 2004년 대한민국명장, 패

션디자이너 분야 양장 명장에 오르는 영광도 얻었죠."

명장의 가르침을 원하는 학생들이 늘자 서완석 회장은 2006년, 모즈복장학원을 열어 본격적으로 후학 양성에 나섰다. 그를 거쳐 간 제자만 어림잡아 2,000여명. 해외 유명 디자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방학이면 그 밑에서 입체패턴을 배웠다.

"실루엣, 비례감,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옷이 만들어져요. 특히 체형을 따라가는 옷이 아니라 체형을 감싸주는 옷을 만들라고 강조해요. 체형에 맞추는 건 너무 뻘하잖아요. 우리는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옷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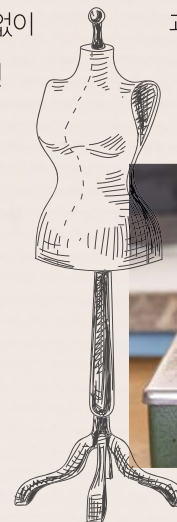
그의 패션 철학은 시대를 관통한다. 2013년, 패턴사로는 처음으로 세계패션그룹 한국지부가 수여하는 패션대상을 받은 그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2017년 패션디자인 박사가 되었다. 2020년에는 신세계인터내셔널의 PB 브랜드 텐먼스의 론칭에 참여해 3년을 함께하며 매출 예상액의 270%를 달성하는 대박을 이끌었다. 여성브랜드 더온미와의 성공적인 협업 또한 명장의 기술은 시대를 가리지 않음을 증명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K-명장의 자부심

2023년에도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숙련기술인으로 외길을 걸으며 명장에 오른 지 20년만에 대한민국명장회 회장을 맡으며 명장의 위상과 사회적 책임을 높게 됐다. 마침 올해로 대한민국명장회가 3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그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숙련기술인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명장회가 더 다양한 활동을 펼쳐야죠. 아직도 기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명장들이 기술 하나로 은퇴 없이 50년 이상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서완석 회장은 취임 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명장의 자부심을 강조한 창립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고,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명장회 조직을 더 탄탄히 구축했다. 무엇보다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하노이산업대학과 맺은 MOU는 걸출한 성과로 꼽힌다. 우리



나라 명장이 특임교수로 파견되어 기술지도를 하고, 교류 첫째 학생 2~3명을 명장이 운영하는 산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 우리의 뛰어난 숙련기술인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기술 한류의 모습이다.

"9월에는 명장 150명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10월에는 금속산업대전 전시와 인사동 전시, 11월에는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명장 기념품을 판매해 재정도 보충할 생각이구요. 아주 바쁩니다."

서완석 회장은 기술은 하루아침에 무르익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숙련기술은 10년, 20년 세월이 쌓일수록 더 깊어진다. 때문에 연로한 명장이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꼼꼼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개선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숙련기술인이 쌓아온 성취를 단절 없이 꾸준히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명장은 단순히 기술만 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인성과 품격도 갖춰야죠. 그래서 윤리, 철학, 도덕도 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하니까요."

서완석 회장은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말한다. 기술과 재능의 빼어남은 물론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 명장의 품격이란 이런 것이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최우수상 수상작

청년과 아저씨의 경계에서 출사표를 던지다!



30살이 되던 해, 내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취업과 결혼, 동시에 부모가 되는 경사가 연이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보 아빠로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예전부터 바라던 '해외취업'과는 자연스레 멀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시금 오랜 꿈을 떠올리게 됐다. 그리고 33살, 청년과 아저씨의 갈림길에서 마침내 잊혀가던 '꿈'을 선택했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해외취업이라는 결단을 내린 후 어느 나라를 행선지로 정할지부터 신중하게 고민했다. 오랜 건축 역사를 지닌 유럽 중에서도 독일은 건축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점이 돋보였다. 마침 독일에서 건축가는 부족 직군으로 분류되어 비자를 받고 정착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유리했다. 취업 상황과 직업적 발전, 그리고 예산까지 삼박자를 갖춘 곳은 독일 뿐이었다. 세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도전하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실수와 고생은 최소화하고 싶었다. 독일에서 다니게 될 어학원의 수업 날짜, 독일어 시험 날짜, 성적표를 받기까지 기간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크했다. 1년 치의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나니 실행은 오히려 간단했다. 목표와 계획이 뚜렷했기 때문에 유학 당시 걱정과 잡념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다.

※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각색하여 짧게 전합니다.
자세한 수기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하세요!

탄탄한 전략 아래 배우고 또 도전하다

어학원 코스를 수강하는 동시에 육아도 해야 했기에 나는 오전반, 와이프는 오후반 수업을 들으며 교대로 아이를 돌봤다. 저녁엔 함께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고, 아이가 잠들면 그때부터 경쟁적으로 독일어 공부를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 부부는 A1부터 C1까지 낙방 없이 계획한 어학 기간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후 독일어로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한 나는 지원한 약 열 군데의 건축설계사무소 중 네 곳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 있었다. 업무와 비전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었던 회사 측으로부터 계약서를 받게 됐고,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9월, 나는 독일에서 건축가로서 첫 출근을 하게 된다.

나를 증명하는 과정

해외취업 성공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독일인 동료들 사이에서 독일어로 일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 주눅 들고 자존심 상하는 순간도 많았지만, 언어는 조금 부족할지언정 건축적 능력만큼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던 중 때마침 규모가 꽤 큰 요양원 설계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서 2등 수상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1등을 놓친 아쉬움이 있었지만 적어도 회사 내에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거기다 대학생 때부터 즐겨보던 독일 유명 잡지에 작품이 소개되는 뿌듯한 경험도 누릴 수 있었다.

더 경쟁력 있는 건축가로서 독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직을 결심한 나는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건축 엔지니어 회사에 입사해, 현재 다임러(Daimler)사 산업용 건물 설계 프로젝트의 엔지니어이자 건축가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 건축가로서 4년 차에 접어든 나는 앞으로도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의 건축을 두루 경험하며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건축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물론 한국에서도 작품활동을 하며, 양국의 건축 문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꿈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또 한 번의 도전

(주)맑은기업 (베이커스 바오밥)



#상생스토리

매월 상생스토리에서는 공단과
PRESG 업무 협약을 맺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주)맑은기업

대표자 황희

사업 복사용지, 사무용품, MRO,
점보롤, 화장지, 토너, 인쇄,
카페-베이커리

주소 울주군 범서읍 관문로 656

문의 T. 1800-7042

불의의 사고로 갖게 된 장애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품게 만들었다. 복사용지 판매업으로 시작해, 어느덧 연 매출 100억을 바라보고 있는 (주)맑은기업 황희 대표의 이야기다. 480평 규모 대형 베이커리 카페 오픈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울주군 '베이커스 바오밥'을 찾아가 보았다.



맑은기업을 설립한 계기를 알려주세요.

창업 전 잠시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나름대로 원래 전공이었던 컴퓨터 분야의 기술을 살려 일을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장애인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죠. 저 역시 사고를 겪고 4년간의 병원 생활 후 사회에 나왔을 때, 장애인으로서 구직과 근무가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몸소 느껴봤기 때문에 더욱 간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후 '복사용지 판매'라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2011년, 단 3명의 인원으로 (주)맑은기업의 문을 열게 되었죠.

그런 맑은기업을 이렇게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2년 제조공장을 세우고, 15명의 인력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월 매출이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판로 개척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공공기관의 문을 두드렸죠. 마침 울산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었고, 이때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거래처를 하나 둘 확보하며 기반을 마련해갔습니니다. 그러자 6개월 후부터는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더라고요. 이후 사무용품, MRO, 점보롤, 화장지 등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장했어

요. 청주에 물류기지를 설립하기도 했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어느덧, 연 매출 100억 원을 바라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기업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됐어요. 현재 30명이 넘는 직원 중 60% 이상이 경증·중증장애인입니다. 곧 오픈 예정인 카페에도 장애인 직원 한 분이 근무하게 될 예정이며, 꾸준히 추가 고용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고용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게 질적 측면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공장을 증축해 휴게 공간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기업의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회사에 정년퇴직은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맑은기업엔 창립 멤버 다수가 11년이 넘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맑은기업의 제품이 가진 특징점이 있다면요?

사실 복사용지를 생산하는 것 자체는 원단을 갖고 와서 자르고 가공하는 단순한 업무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장애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다만 공정에 있어서는 2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제품을 납품했던 학교의 주무관님이 복사용지 박스 배출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포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렇게 2015년, 테이프나 접착제, 스테이플러 사용 없이 100% 접어서 봉할 수 있는 박스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후 해당 포장 기술을 특허 등록하며 녹색 기술 인증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야인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맑은기업에는 제도·정책에 대한 의존적 구조, 매출 대비 이익률이 크지 않은 사업 내용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어요. 민간 시장 진출을 통한 자립을 도모해야만 했죠. 그러다 한 부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풍광이 참 좋은 게 공장을 운영하는 아까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베이커리 카페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민간 시장 진출은 물론 기존 고객사인 공공기관과도 새로운 거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어요. 기프트 세트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어느 정도 사업의 방향성을 잡은 후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으며, '베이커스 바오밥'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7월 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이커스 바오밥을 어떤 공간으로 운영해나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 내가 편하면 모든 고객에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장애인 화장실뿐만 아니라 수유 공간, 엘리베이터, 좌석 배치 등 공간마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만큼 장애인도 물론 어린이, 노인 등 온 가족이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커피와 빵이 있는 베이커리 카페여야겠지요. 그래서 커피 머신에도 욕심을 냈고, 제과 기능장 두 분도 모셔 왔습니다. 믿고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무엇하나 허투루 대접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업 확장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장애인 고용은 아직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군 위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에 저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커스 바오밥이 잘 돼서 추후 2호점, 3호점으로 확장하면 각 매장에 재료를 공급하는 공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고용 창출 역시 뒤따를 테고요. '바오밥 나무'는 천 년의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거친 환경에서도 생존하며 오래 사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죠. 맑은기업이 그리는 미래도 그런 모습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늘 굳은 희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생협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는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인식해보세요!



부산을 빛내는 일곱 교량

세븐브릿지를 만나다

부산의 수많은 여름 관광지 중 어디로 떠나야 할지 고민이라면? 에너지 넘치는 바다와 화려한 해안 경관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7개 교량, 세븐브릿지 투어를 추천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로 더 뜨거워진 부산 안에서도 가장 '부산스러운'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의 매력

2022년 개발된 부산의 관광브랜드 '세븐브릿지'는 부산 내 7개 해양 교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로 선정된 지역 대표 교량을 테마로 개별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발굴, 이를 관광브랜드로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의 계획이다.

세븐브릿지에는 각 특색을 반영한 개별 BI(Brand Identity) 디자인이 부여됐는데, 7개 교량을 대표하는 통합 BI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본뜬 형태다. 2003년 개통한 광안대교는 갈매기와 파도의 곡선을 닮은 현수교로 지어졌으며, 마린시티의 마천루 그리고 광안리 해변과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덕분에 이를 배경으로 한 행사도 많다. 반짝이는 광안대교 위를 달릴 수 있는 '나이트레이스 인 부산', 전국 최초의 드론 상설공연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등은 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은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준다.

알차게 즐기기!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600대~2,000대 규모의 드론을 사용, 매번 다른 주제의 공연을 진행한다. 광안리해수욕장 어디서나 관람이 가능하다.

📅 매주 토요일 2회 공연(3~9월 20시~22시, 10~2월 19시~21시)



도개(跳開) 보러 오이소, 영도대교 보러 오이소

영도대교는 부산 최초로 육지와 섬을 연결한 연륙교이자, 한국 최초의 단엽식 도개교로 잘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공사를 시작해 1934년 준공된 영도대교는 당시 하루 일곱 번씩 다리 밑을 지나가는 선박을 위해 상판을 들어올리는 장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66년 도개 중단 이후, 2013년 노후화된 기존 다리를 철거하고 다시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했다. 길이 31.3m, 590톤 무게의 교량 상판이 2분여 만에 75도 각도로 세워지는 모습은 웅장한 감동을 선사한다. 영도대교 주변으로는 영도 강강이 예술마을, 중앙동 40계단거리 등 부산의 근현대사를 훑아볼 수 있는 다양한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알차게 즐기!! 영도대교 도개 행사

도개 장면은 영도대교 바로 인근의 유라리광장, 롯데백화점 광복점 전망대,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등에서 관람할 수 있다.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의 역동성을 닮은 다리,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는 영도구와 남구를 잇는 부산의 대표적인 사장교로, 동남권의 원활한 물적·인적 흐름을 책임지는 다리다. 무지갯빛 아름다운 야간조명으로 유명하다. 큰 규모 덕분에 많은 장소에서 그 웅장한 자태를 바라볼 수 있는데, 청학수변공원, 해돋이마을, 청학배수지가 대표적인 '부산항대교 뷰' 명소다. 한편, 영도고가도로와 부산항대교가 맞닿아 있는 나선형 88도로 구조의 진입로는 짜릿한 경사로 유명하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키는 이 도로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높이에서 400m의 360도 회전구간을 거쳐야 완전히 지날 수 있으며,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 방호울타리가 낮아 더욱 아찔한 곳이다.

알차게 즐기!!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부산항대교 하부공간에 조성된 캠핑장. 교량의 360도 순환로와 바다의 풍경이 어우러져 특별한 감성을 자아낸다.

☑ 예약 추천 www.yeongdo.go.kr/marinocamping



남항대교 위에서 소박한 정취를 느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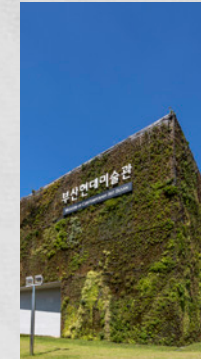
남항대교는 부산 서구 암남동과 영도구를 연결하는 다리다. 서구 진입로에서 바라보는 건너편 흰여울문화마을 풍경은 부산의 매력을 담고 있다. 광안대교나 부산항대교와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 소박한 매력을 간직한 곳, 그 어디보다 교량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남항대교다. 실제로 남항대교에는 내항 방면에 설치된 폭 3m 규모의 산책로가 있는데, 이곳을 걸으며 남항 일대의 풍광과 부산의 해안까지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남포동 방면으로 방파제의 등대는 물론 부산타워, 자갈치시장의 풍경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마치 바다 위 신선놀음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알차게 즐기!! 송도해상케이블카

최고 86m 높이에서 바다 위를 가로질러 운행하는 케이블카. 송도 해안둘레길과 기암절벽, 남항대교까지 감상할 수 있다.

☑ 매주 하절기(7~8월) 9~22시, 그 외 9~21시

함께 둘러보면 좋은 동네방네



부산현대미술관



을숙도에 위치한 공공미술관으로, 자연·뉴미디어·인간을 지향하며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동시대 미술 중심의 전시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 사하구 낙동남로 1191



신호공원



신호대교 인근의 갯벌 체험으로 유명한 근린공원.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산책을 해봐도 좋고, 아이와 함께라면 물놀이터에 둘러봐도 좋다.

☑ 강서구 신호산단1로 72번길 46



정거마을



가덕도와 인접한 작은 섬 놀차도의 관광명소이자 벽화마을. 어촌의 풍경에 벽화가 더해져 소박하면서도 예술적 정취를 자아낸다.

☑ 강서구 놀차동 832

직업도 다다익선? N잡러가 된 MZ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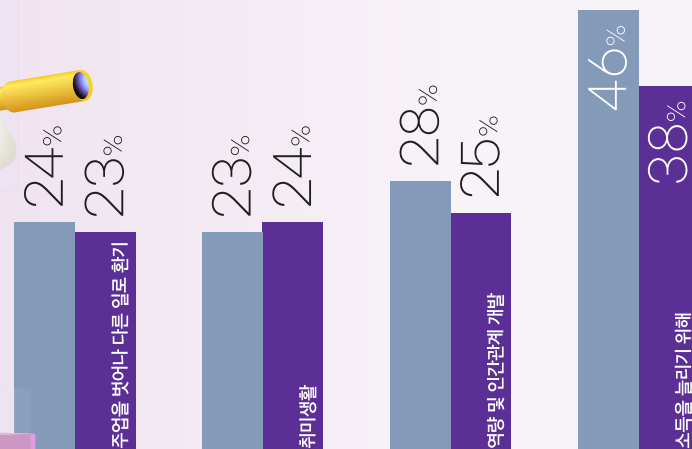
‘N잡러’를 자처하는
MZ세대가 늘어난 요즘.
워라벨을 외치던
이들이 부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뭇 달라진
청년들의 일자리
생태계를 알아본다.

MZ 직장인, 3명 중 1명은 현재 부업 중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유튜버이자 영상 편집자’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투잡은 옛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인 ‘N잡러’까지 등장한 지 오래다. 특히 자신을 단 하나의 단어로만 정의하지 않는 MZ세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한국딜로이트그룹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이하 M세대)의 26%, Z세대의 34%가 부업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MZ세대 501명 조사 기준). 한국 MZ 직장인 3명 중 1명은 N잡러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셈이다. 누구보다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퇴근 후의 여가를 중요시하던 이들이 소중한 시간을 쪼개 또 다른 수익을 얻으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MZ세대의 최대 관심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 MZ세대 501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생계비 걱정’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 해외 청년들의 응답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경기 불황, 낮은 소득 수준은 이처럼 전 세계 MZ세대의 생계비 고민을 증폭시켰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부업의 길로 이끌었다. 물론 취미생활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N잡러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MZ 세대가 부업을 하는 주요 이유

■ M세대 ■ Z세대



각양각색! N잡의 세계

그렇다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부업은 무엇일까? 여기서는 M세대와 Z세대의 응답이 서로 갈렸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인 Z세대가 가장 많이 행하는 부업 활동은 ‘개인사업 운영 또는 컨설팅(21%)’, ‘레스토랑·소매 상점 근무(21%)’로 나타났다. 반면 1980년대 초반 이후 출생한 M세대의 경우 음식배달 또는 승차공유 앱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긱워커(2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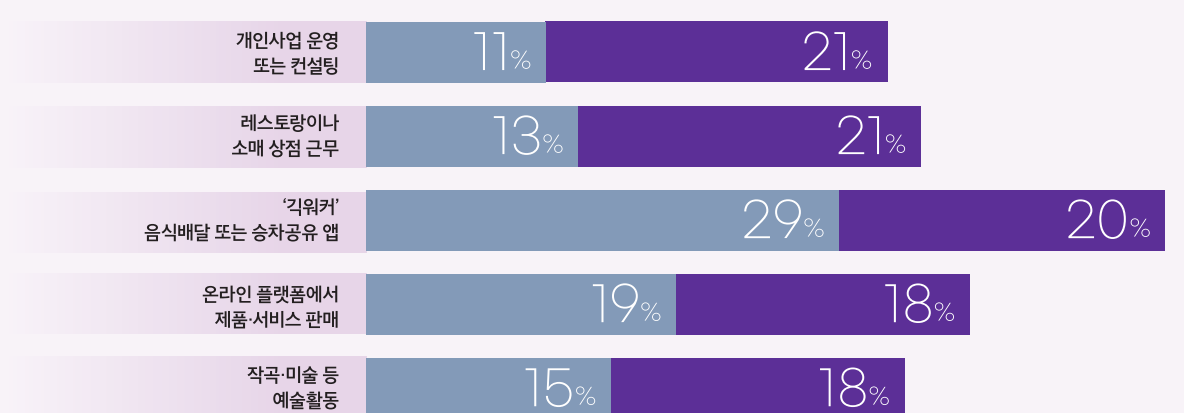
한편, 선호하는 N잡은 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국내 수도권 거주 20~30대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치앤코의 설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업은 ‘소셜 크리에이터(46%)’였으며, ‘온·오프라인 판매업(41%)’, ‘재능마켓(36%)’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탈잉, 크몽 등 재능거래 플랫폼은 그 접근성이 좋아 N잡러를 꿈꾸는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다.

N잡으로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면에 그들이 겪는 경제적 고초는 결코 작시해서는 안 될 문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젊은이들이 가진 능력과 기술을 발굴하고, 그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숙제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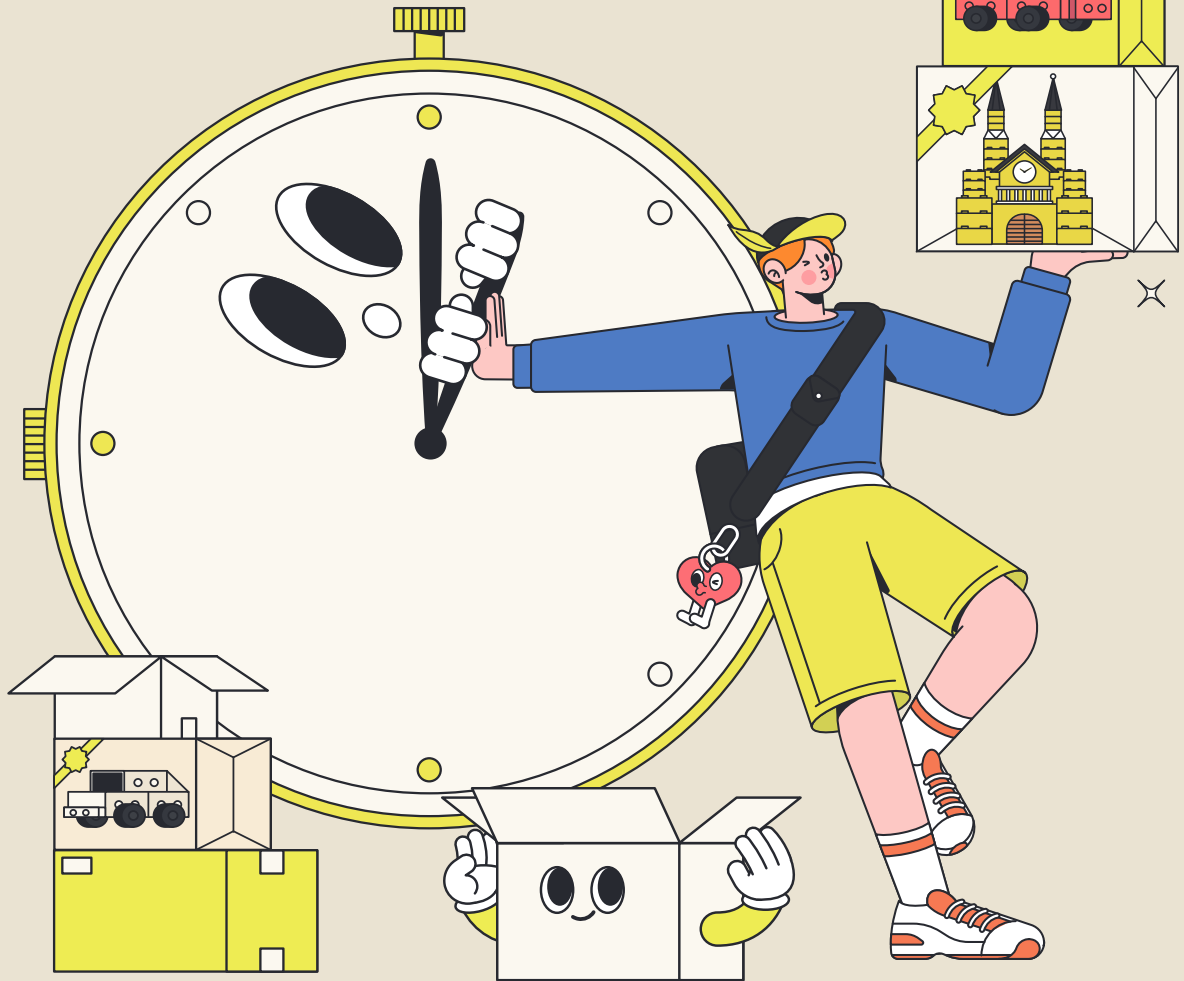
한국 MZ 세대 부업 현황

■ M세대 ■ Z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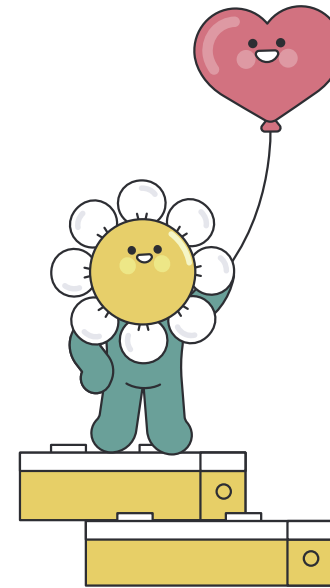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의 세상 네버랜드 신드롬

어른 되기를 한껏 늦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영원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 이른바 '네버랜드'의
피터팬들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생애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트렌드로 떠오른
네버랜드 신드롬에 대해 알아본다.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어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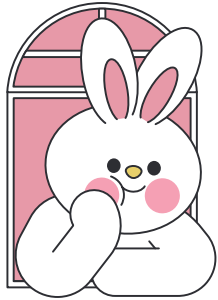
한국 사회에는 또래보다 젊게 사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동안'이 유행이던 시절처럼 외적인 젊음뿐 아니라, 행동과 마음가짐에까지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멋지다' 보다 '어려 보인다'라는 칭찬을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흔히 '어른' 하면 떠올리는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신을 어른이자 어린이라는 뜻에서 '어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이 들기를 거부하며, 영원히 아이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을 서울대학교 소비자트렌드분석센터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 명명했다. 동화 속 피터팬과 친구들이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으며 살아가는 곳 '네버랜드'의 이름을 딴 이 현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년 시절의 순수함과 동심을 보존하려는 욕구로부터 시작됐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어른'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동일한 개념으로 오해하기 쉬운 '피터팬 신드롬'과는 그 결이 다르다. 피터팬 신드롬이 현실 도피를 위해 스스로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린이'로 남아 퇴행하는 부적응 상태를 일컫는 말인 반면, 네버랜드 신드롬은 사회 전반에 '어른이'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보다 가치중립적 용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어리게 살고 싶은 욕망은 철없음이 아닌, 유쾌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잃어버린 추억과 순수함을 찾아서

#키덜트의 대중화
#추억을 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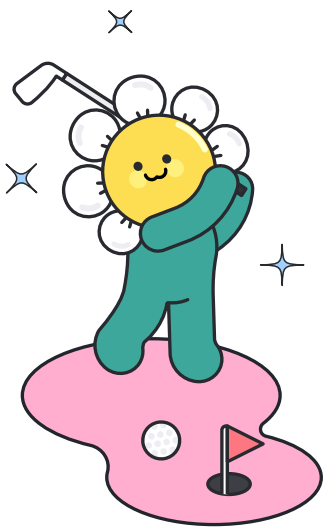


어른들에게 '띠부쌀'의 추억을 안겨줬던 포켓몬 빵의 재출시는 전국에 '어른이'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 사례다. 포켓몬 빵이 처음 출시된 1990년대 당시 어린이였던 고객의 향수를 자극했고, 재출시 43일 만에 1,000만 개가 판매되며 옛날의 인기를 넘어서다. 이처럼 일부의 취미라 여겨지던 어린 취향, '키덜트(kid+adult) 문화'가 순수대중문화 시장에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완구 기업 레고(LEGO)는 2020년 미국에서 "어른들 환영(Adults Welcome)"이라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홈페이지에 성인을 위한 별도 섹션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 장난감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58%가 본인을 위한 장난감 또는 보드게임을 구입한 적이 있을 정도로, 키덜트는 진정한 대중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금 나이 그대로, 즐겁게 놀다

#시니어 팬덤
#명랑골프



한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추억'일 것이다. 미국에선 추억을 무기로 한 관광 아이템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른들을 위한 서머캠프'다. 서머캠프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야영 또는 수련회와 비슷한 것으로, 전국 곳곳에서 온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다. 추억의 서머캠프를 그대로 재현한 어른들의 서머캠프에는 참가 후 24시간 동안 직업을 밝히지 못한다는 독특한 규칙이 있는데, 이는 사회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 대 인간으로 친구가 됐던 오래된 경험을 상기시켜 준다. 어른의 세계에서 잃어버린, 또는 잊고 살던 예전의 순수함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는 계속해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제는 여가생활에서도 더 이상 나이가 중요치 않아졌다. 늦은 나이에 연애인을 좋아하게 된 고연령층의 팬을 지원하기 위한 팬덤 전문 학원이 등장할 정도다.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운영하는 영웅시대 네이버 밴드에서 만든 '참된 덕후 교실'은 '덕질' 활동에 필요한 음원사이트 가입 및 승인 방법, 각종 응원법 등에 대한 무료 교육을 제공하며 시니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느 여고생들의 놀이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은 활동을 즐기는 중년 여성의 모임도 존재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양말을 무지개색으로 맞춰 신고, 우정반지를 나눠 끼며 서로의 우정을 확인한다. 한편 골프에 입문하는 '골린이'가 많아짐과 동시에 SNS에서는 '명랑골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규칙이 복잡하고 엄격한 기존의 골프와 달리, 명랑골프는 룰이나 스코어에 연연하지 않고 주변인들과 편안하게 즐기는, 일종의 새로운 골프 문화다.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이후 실내를 벗어나 야외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골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생겨났다. 불안으로 가득 찬 사회 속, 어른의 삶에서 벗어난 취미는 삶의 압박감을 덜어주는 안식처가 된다. 돌이켜보면 '청춘'이라는 분류가 등장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중년' 역시 20세기 말에 탄생한 개념이다. 성숙함과 어른스러움으로 스스로 한계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어른의 무게를 짊어지고 불필요한 체면을 차리기보다, 하루쯤 '요즘 어른'의 모습인 어른이로 살아가 봐도 좋을 것이다.

네버랜드 신드롬, 이런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여행기획자 Travel Planner

무슨 일을 하나요?

시장 트렌드,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여행을 좋아하며 창의적이다!
-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움이 될 자격 Tip

국내여행안내사

국내 여행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정 계획, 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입니다.

진출분야

여행사, 관광관련업체, 호텔 등

캐릭터 디자이너 Character Designer

무슨 일을 하나요?

특성과 쓰임에 따라 캐릭터에 얹힌 스토리를 만들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 새롭고 남다른 방식으로 이야기와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도움이 될 자격 Tip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시각화 조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로, 시각 디자인 조사 및 분석부터 제작 실무까지 전반적인 시각디자인 능력을 평가합니다.

진출분야

디자인 전문업체, 광고대행사, 기업체 홍보실 등



프로그램 투데이 고용플러스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후 8시 30분

중대재해 막아주는 AI가 뜬다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내 중대재해 사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예방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AI 센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지킨다

안전조치 소홀로 산업 현장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래 첫 실행 선고가 나오면서,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는 추세다. 특히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

대되어 중소기업에도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현장 곳곳에서 AI 기술을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로 숨진 근로자 644명 중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8명 증가했다.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설업에서의 낙상 사고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 중 50% 이상이 낙상 사고로 조사되고 있다.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기만 해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비율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전모 착용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다. 현장에 적용된 AI 시스템은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모를 벗고 현장에 머무르는 작업자에 대해 실시간으로 경고를 해준다. 센서 데이터로 사용자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품하면 알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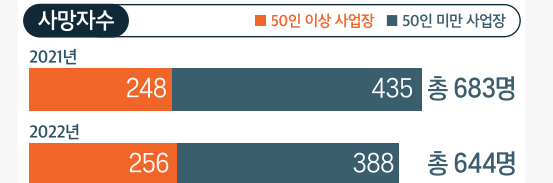
화물차 사고를 줄여주는 첨단기술

이러한 AI 기술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화물차 내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에 카메라가 장착돼 운전자가 눈을 감거나 하품을 하는 모습을 포착하면 “졸음운전을 하지 마세요”와 같은 알람음성이 울린다. 직접 알람을 들은 한 운전자는 “큰 음성멘트로 인해 각성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사용 소감을 전했다. 화물차는 차체가 무거워 사고가 발생할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056명이었는데,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그 중 절반가량인 486명이었다. 특히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태만은 427명으로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작은 방법이라도 연구하고 꾸준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사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위험 상황을 현장에 알려 대형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AI 기술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실제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 첨단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지속적 관심만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업종별 사망자

2022년 기준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홍보미디어실(052-714-8196)로 문의



여름철 염분 섭취는 필수 소금과 건강

짭 것은 정말 우리 건강의 적일까?
소금에 관한 다양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고,
똑똑한 소금 섭취법까지 확인해보자.

궁금증
하나

저염식은 건강식인가?

소금은 한때 ‘소리 없는 살인자’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소금 섭취가 부족했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와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소금이 부족하면 몸에 다양한 적신호가 발생한다. 소화불량, 무기력, 염증, 뇌 활동 이상, 근육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전해질 이상을 일으켜 생명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한다.

궁금증
둘

한국인은 짜게 먹는다?

우리 식단은 곡식과 채소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염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육식과 달리 별도의 염분 섭취가 필수다. 한국인이 짜게 먹는다 오해는 ‘김치’나 ‘국물 요리’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치나 장아찌 등에는 칼륨 함량이 높는데, 이는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보완적 기능을 한다. 또한 국은 물에 염분이 녹아있는 형태로, 물에 희석되어 오히려 염도가 낮아진다. 때문에, 단순히 나트륨 함량만을 따져서 과다 섭취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궁금증
셋

소금은 고혈압의 주범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마다 소금 섭취량에 따라 혈압이 비례해 올라가는 염민감성(salt sensitivity)인 경우와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도 혈압에 큰 변화가 없는 염저항성(salt resistance)인 경우가 따로 있다. 둘의 비율은 거의 반반이고,

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즉 세상 사람의 절반은 소금을 먹어도 혈압 상승의 우려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염민감성을 가진 경우라 해도 실제 혈압이 상승하는 폭은 그리 크지 않다.

궁금증
넷

짜게 먹으면 살찐다?

저염식은 곧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주장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소금을 끊으면 수분 섭취가 안 되어 순식간에 몇 킬로그램을 감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빠지는 것은 살이 아니라 ‘수분’이다. 식사를 재개하면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거기다 저염식 다이어트는 어지럼증, 탈수, 무기력, 두통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어야 소식이 가능하고, 힘도 빠지지 않는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염분 섭취가 필수다.

소금을 먹을 땐 이렇게!

식사 외에 소금을 따로 먹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은 입맛에 맞게 간을 해서 맛있게 먹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섭취해 줘야 한다.



따로 소금 섭취를 하면 좋은 경우

- 감기에 걸렸을 때
- 열이 날 때
- 비염 등 염증이 있을 때
-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 피부병이 있을 때
- 공부할 때
- 머리를 써야 할 때

영·유아

- + 모유 수유 중인 엄마라면 소금양을 늘린다.
- + 소금물을 시럽병, 바늘 뺨 주사기를 이용해 먹인다.

어린이

- + 음식에 충분히 넣거나 우유나 두유, 이온 음료에 타서 준다.
- + 식탁 등 보이는 곳에 소금통을 두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한다.

청소년

- + 1% 염도의 소금물을 준비해 물 대신 마시도록 한다.
- + 이온 음료에 타서 준다.

직장인

- + 소금물이나 소금차를 물병, 텀블러 등에 타 놓고 물 대신 수시로 마신다.
- + 음주 전후나 야근할 때는 평소보다 염도가 진한 소금물이 필수!

HRD NEWS

2023 August vol. 326

01
HRD

HRDK와 함께하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스타트 RUN』 행사 개최



02
HRD

공단,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16개 중점과제 발굴



공단은 7월 26일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부산광역시 2030엑스포 추진본부 김도임 유치기획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HRDK와 함께하는 2030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스타트 RUN』 행사를 개최했다. 공단은 청사 내외부 현수막 게시와 직원 홍보대사 위촉, SNS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상시적인 국내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2023 EPS conference in Busan’에 고용허가제 체결국가 16개국이 참여하는 만큼, 적극적 홍보로 각국의 지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산에 엑스포가 개최되면 그 파급효과로 울산도 일자리와 관광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 외에도 정부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7월 5일 조직문화의 혁신을 위한 1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발족한 공단 ‘HRDK 조직문화 혁신추진단’이 설정한 조직문화 6대 혁신 목표는 ▲수평적 소통 ▲조직력 강화 ▲성과와 보상 연계 ▲임직원 경력개발경로 설정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업무효율화 등이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정부 국민청원제도의 특징을 결합한 ‘HRDK 십리대숲’ 게시판 신설, ‘HRDK 마일리지’ 도입, 다면평가 우수직원 공개 등이 그 세부 과제로 결정됐다. 추진단장인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이 조직문화에 만족하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이는 곧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라며, “혁신과제를 잘 수행해 공단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03
HRD

국가자격증, 전자지갑(Q-net)에 담아 쓴다



공단은 국가자격 및 국민의 교육·훈련 정보를 ‘디지털 배지’로 구현할 ‘국가자격 전자지갑(Q-net 앱)’ 개발에 착수한다. 해당 서비스 게시로 이용자는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국가자격 전자지갑’ 앱을 내려받아 자격취득 및 훈련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비대면·모바일로 즉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향후 공공과 민간의 자격증 시행기관과도 연계해 서비스 대상 자격증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04
HRD

2023년도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 개최



공단은 7월 12일 2023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는 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공유·개방 플랫폼으로, 공단은 이를 ESG 가치 기반의 대표적인 신산업 훈련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년 신규 선정된 8개 기관은 각기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산업현장 및 지역민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현재까지 K-디지털플랫폼 35개소, 산업전환 20개소, 첨단산업 4개소 등 총 59개의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했으며, 2026년까지 100여 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하이테크형 훈련모델의 확산을 통해 산업현장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05
HRD

공단, 해외취업 경력자 대상 국내 재취업 지원행사 ‘마이데이’ 개최

공단은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청년들과 국내 구인 기업 간 연결을 지원하는 ‘Meet up’ 마이데이(Matching Youths DAY)를 개최한다. 올해는 HL홀딩스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해 해외영업 등 18개 직종에서 21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첫째 주에 개별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해외취업 청년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기업의 채용 정보는 월드잡플러스 마이데이 특별채용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RDKorea 독자이야기

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참여기간
8월 28일(월)까지

올해 꼭 배우고 싶은 것, 또는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HRD KOREA」 이번 호 테마인 숙련기술장려사업에 관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 상품(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vol.326 HRDKorea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왼쪽의 QR 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만드는 HRD Korea! 사업 참여 스토리 공모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사업에 참여 경험 이야기 등을 사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훈련 참여 스토리, 국가기술자격 취득 스토리 등...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 분량 A4용지 1장 내외(글자수 약 2천자)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응모 기한 8월 28일(월)까지



HRDKorea
2023년 7월호
당첨자

2023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만족도 조사 당첨자-

| | |
|-----|-----|
| 한상대 | 김수아 |
| 최마루 | 박세진 |
| 조성행 | 정 민 |
| 최재호 | 이경재 |
| 권기훈 | 노성민 |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HRD Korea」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 우리 사회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HRDKorea
이번호는 어떠셨나요?

QR코드, 이메일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당첨자 안내를 위해 이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
| | | 1 | 2 | 3 | 4 | 5 |
| • 기사 제2회 실기시험 (7.22-8.6) | •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원서접수(7.31-8.4) • 제11회 행정사 2차 원서접수 (7.31-8.4) | | • 기사 제3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 | • 기술사 제130회 면접시험 (8.5-8.15) •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차 시험 |
| 6 | 7 | 8 | 9 | 10 | 11 | 12 |
| | • 제34회 공인중개사 1, 2차 원서접수(8.7-8.11) •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8.7-8.10) | | • 제4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2차 합격자 발표 •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합격자 발표 | • 제31회 청소년지도사 1차 빈자리원서접수(8.10-8.11) | | •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 (8.12-8.25) • 기능장 제74회 실기시험 (8.12-8.25) • 제60회 세무사 2차 시험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제34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원서접수(8.14-8.18) • 제22회 청소년상담사 1차 원서접수(8.14-8.18) | | | • 제21회 가맹거래사 2차 합격자 발표 • 제20회 농산물품질관리사 2차 합격자 발표 | • 기사 제2회 실기시험 1차 합격자 발표 | •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3차 시험 (8.18-8.19) | • 제31회 청소년지도사 1차 시험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제9회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원서접수(8.21-8.25) •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원서접수(8.21-8.25) | | | | • 제9회 손해평가사 2차 빈자리원서접수(8.24-8.25) | •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2차 시험 | • 기술사 제131회 필기시험 |
| 27 | 28 | 29 | 30 | 31 | | |
| | •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8.28-8.31) | | • 제27회 물류관리사 합격자 발표 | • 제34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 (8.31-9.1) | | |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미리

알아보는

9월 일정

☎ 국가기술자격

• 기사 제2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 발표(9.1)

• 기사 제4회 필기시험(9.2-9.17)

• 기사 제3회 실기시험 원서접수(9.4-9.7)

• 기술사 제131회 면접시험 원서접수(9.5-9.8)

• 기술사 제130회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9.8)

•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 1차 합격자 발표(9.13)

• 기능장 제74회 실기시험 1차 합격자 발표(9.13)

•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9.19-9.24)

•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 발표(9.20)

• 기능장 제74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 발표(9.20)

• 기사 제4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9.22)

☎ 국가전문자격

• 제34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
(8.31-9.1)

• 관광통역안내사 1차 시험(9.2)

• 제9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9.2)

•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빈자리원서접수(9.7-9.8)

•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빈자리원서접수(9.7-9.8)

•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9.9-9.10)

• 제34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시험(9.9)

• 제22회 청소년상담사 1차 빈자리원서접수(9.14-9.15)

•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9.16)

•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9.16)

• 제25회 경비지도사 1, 2차 원서접수(9.18-9.22)

•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1, 2차 원서접수
(9.18-9.22)

•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2차 합격자 발표(9.20)

•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3차 합격자 발표
(9.20)

•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차 합격자 발표(9.20)

• 제9회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빈자리원서접수(9.21-9.22)

• 제22회 청소년상담사 1차 시험(9.23)

• 부득이한 경우 시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